

# “매일이 ‘삼시세끼 어촌편’...일 도우며 귀어 적응”

전남도 우수귀어인 선정 여수 미포어촌계 장은수 사무장

퇴직 전 어촌생활 꿈꾸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참여 마을 곳곳 일 솔선수범하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마을에 동화돼 귀어 1년 전복 양식장 일 거들며 내년 3t 어선 마련하는게 목표

“하루하루 ‘삼시세끼 어촌편’을 찍는 기분입니다.”

지난해 3월 은퇴한 뒤 여수미포마을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장은수(62)씨는 매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재료로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바다 생활을 한 지 1년이 갓 지났지만, 그의 그늘진 얼굴과 손에서는 도시인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익산에서 나고 자란 뒤 수원에서 수십 년 직장생활을 한 장씨는 여수에 연고 없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어촌 생활을 꿈꾸며 차근차근 귀촌 준비를 했다.

전남도가 진행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

기’ 사업에 참여하며 금오도 대유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고 지인들과 전남 곳곳에서 캠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미포어촌계 사무장을 맡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돌보게 됐다.

지난 여름 미포마을은 세 차례의 태풍이 여수 앞바다를 덮치면서 밀려든 해양쓰레기 등 곤욕을 치렀다. 사무장을 맡은 장씨는 주민들과 힘을 모아 청소에 나서 하루 만에 깨끗한 해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장씨는 전남 어촌에 활력을 제공하고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전남귀어귀촌 지원센터(센터장 최연수)로부터 ‘2020년 전남 어촌 우수귀어인’ 상을 받았다.

대개 어촌계 문턱이 높다는 게 자자한 얘기지만 장씨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20여 어촌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벽부터 밤 훌리고 녹초가 된 어촌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것조차도 힘든 일입니다. 말뚱말뚱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한국전력에서 판매계약 업무에 몸 담았던 경험도 마을에 동화되는 데 한 몫 한 것 같아요.”

장씨는 육식은 모두 도시에 두고 귀촌했다.

아직 그에게는 변변한 양식장이나 어선 한 척 없다. 이웃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거들며 귀어 첫걸음을 때는 중이다. 대신 아름다운 다도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뒷밭에서 콩, 대파, 당근 등 제철 농산물을 키우는 재미를 쏠쏠히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내년 봄이 되면 3t짜리 어선을 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이 있는 수원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다음 명절에는 미포마을



식구가 더 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글=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3분기 ‘ 으뜸광주세관인’ 4명 선정



으뜸 광주세관인 시상식에서 심사분야에 선정된 광주세관 전경일(가운데) 행정관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13일 ‘3분기 으뜸 광주세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세관인으로는 여수세관 김홍일, 광주세관 전경일, 광양세관 구선미, 제주세관 조경수 등 4명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로 선정된 김홍일 행정관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여수시 묘도 LNG 탱크터미널 건설사업에 관련 법령의 미비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해당 사안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산업 유치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의 전경일 행정관은 저가 신고된 중국산 생강의 과세가격을 바로잡아 국내 생강 농가 보호 및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통관분야의 구선미 행정관은 물품이동시스템을 활용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조경수 행정관도 관광·레저산업과 관련한 정보분석을 통해 사건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격조작 사건 2건 등 총 7건의 범칙사건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분기마다 적극행정·기업지원, 통관, 심사, 조사·감사, 일반행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특별한 공이 있는 직원들을 발굴해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선정 직원 해당 세관에서 자체 수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지역경제 살리기 사랑나눔활동 기부금 전달



## 중기중앙회, 여수시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중기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여수시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여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김기문 중앙회장은 여수시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여수시의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5월 8일 제정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9년 12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광역 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부산반부패회의 연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

샌델 교수는 첫날 열리는 특별세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행으로 부각되는 사회의 불공정한 면을 진단하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통찰력을 전달할 것이라고 권익위가 12일 밝혔다. 해당 세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연사로 참여해 한국 사회의 공정·정의와 관련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청년과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개최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10 SBS 뉴스 30 실컷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송터	00 도도술술라라술(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키티 9 리턴즈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투페이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덕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남도에 가요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큐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술술라라술	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0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통합뉴스룸 ET(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왕스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뽀뽀 뽀로로	14:45 세미와 매직큐브	<유럽의 골목길 -눈이 부시게, 오스트리아>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살면서 한 번은 3부 그 남자의 놀이터>
08:00 당동명 유치원	16:15 로빈 후드	21:50 EBS 다큐프라임
08:30 고고다!는 우리동네공룡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국한직업
08:45 위안극장 리턴즈	16:50 해오와 해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곰	24:20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왕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8월 28일 庚寅)

<p>36년생 기대지에 못 미처 실망하는 판도이다. 48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60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72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84년생 세분화 되면서 점점 흥미를 더 하게 되리라. 96년생 불편하다면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5, 93</p>	<p>42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54년생 반말이 전도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66년생 역만 그대로 받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78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 하리라. 90년생 남을 의심할 필요 없다. 02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22, 72</p>
<p>37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 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49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 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61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73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리라. 85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97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행운의 숫자 : 14, 90</p>	<p>31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43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다. 55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67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79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91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69</p>
<p>38년생 이른 아침부터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50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62년생 극상의 정점과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라. 74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86년생 가끔씩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이 나올 것이다. 98년생 별 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56, 65</p>	<p>32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44년생 모순과 단절 투성이므로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56년생 반말이 보이므로 관리를 잘 하라. 68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80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92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97</p>
<p>39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51년생 즉흥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63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75년생 무리가 따른다면 행하지 않아야 옳다. 87년생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99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8</p>	<p>33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45년생 깔끔하게 보인다면 완전히 구도가 달라지리라. 57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69년생 속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끈기를 잠시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93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88</p>
<p>40년생 예상 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52년생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자. 64년생 정성을 다 해왔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76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88년생 방치 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00년생 지나친 낙관은 빈틈을 보이기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60, 52</p>	<p>34년생 어쩔 수 없이 어려울까만 하는 고통이 있다. 46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기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58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0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82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94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1, 99</p>
<p>41년생 집중적으로 조맹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53년생 하나기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65년생 제반사를 살피 위주로 바라보고 조중해야 한다. 77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89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01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7, 62</p>	<p>35년생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7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59년생 단순해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71년생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보인다. 83년생 흔적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만하다. 95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55</p>